

고통을 치유하는 방식-
『약사경(藥師經)』의 경우

하 유 진

서강대학교

주 제 분 류

동양철학, 불교, 문헌학

주 제 어

약사경, 약사신앙, 고통의 문제, 치유

요 약 문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인 생로병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통은 병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 문제를 불교에서는 약사(藥師)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현세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병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현세의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약사신앙이 대신했다. 약사라는 말은 중생의 몸속의 질병과 외상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병이나 전도(顛倒)된 생각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양약(良藥) 중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약사경 사상의 핵심인 약사십이대원(藥師十二大願)의 내용을 통해서 약사여래가 단순히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복이나 음식 등의 의식주문제는 물론 사도(邪道)나 외도(外道)에 빠진 자, 파계자, 범법자 등의 구제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약사경에서는 십이대원 이외에도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 악귀를 물리쳐서 횡사를 면하고 싶은 자,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자들이 약사여래의 명호를 부르면서 발원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약사경 가운데 대승 보살의 제세구인(濟世救人) 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사여래는 중생이 고통에 빠져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고통에 지쳐 있을 때 그를 구제하고자 큰 원을 세워 오랜 수행을 거쳐 성불하였다. 이러한 약사여래는 중생의 고난과 중생계의 온갖 재난을 몸소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이타(利他)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자라고 할 때 약사경이야말로 이러한 대승의 보살사상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접 수 일 : 201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9일

생명연구 제50집 2018년 11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0, Nov 2018, pp. 171~199
<https://doi.org/10.17924/solc.2018.50.171>

고통을 치유하는 방식- 『약사경(藥師經)』의 경우*

하유진
 서강대학교

I. 들어가며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 사람은 모두 고통을 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고통을 실제로 겪는다. 흥기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기도 하고, 말기암으로 절망에 빠져 신음하기도 한다. 어린 자식이 불치의 병으로 서서히 죽어 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고통,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기근과 갈증으로 죽어가야 하는 아프리카인들,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당해야 하는 아픔과 멸시 등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2025112).

수 있는 상상력이 있으므로 함께 아파한다. 싯달타(Siddhartha)는 스스로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고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석가모니의 출가 배경을 설명하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의 전설에서, 그는 성의 동문으로 외출하여 노인을 만나고, 남문으로 외출하여 병자를 만나며, 서문으로 외출하여 장례 행렬을 목격함으로써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세 가지 고통인 늙음과 병과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단행하게 된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諸行無常)고 하는데, 불교의 존재인식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물질세계는 그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성주괴공(成住壞空)하고, 사람의 육신은 생로병사(生老病死)하며, 인간의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한다는 것이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돌개바람이 일어나듯이 형상이 있는 존재가 만들어진다.(成) 형상이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 형상은 계속 변하지만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면서 변한다.(住) 그러다가 이것이 흩어지며 형상이 서서히 일그러진다.(壞) 그러다가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빈 공간이 남듯이 아무런 형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空) 대표적 생명 현상인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 것은 살과 뼈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설계도이다. 이 설계도가 해체되는 과정이 생로병사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전자라는 설계도에 의해서 태어나서(生), 삶이 지속되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부속품을 교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老病), 해체되어 삶을 마치게 된다(死). 정신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금방 나타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은 찰나의 순간에 바뀐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一切皆苦)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고성(苦苦性)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감각이 느끼는 고통으로, 돌맹이를 맞았다든지 길거리에서 넘어졌다든지 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육체적 고통이다. 다른 하나는 괴고성(壞苦性)인데, 다른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변해가고 죽어가는 데서 느끼는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괴고성이다. 괴고(壞苦)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그 무상성으로 인해 상실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만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행고성(行苦性)을 들 수 있다. 행고성은 우주 만물, 즉 모든 창조되는 것 또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괴롭다는 뜻으로, 무상하게 변하는 만물 전체가 괴롭다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무상함을 느끼고 만물이 서로 연관지어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이러한 괴로움은 불안(unrest)이나 불안정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¹⁾ 흔들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

1) Stcherbatsky, *The Central Conception of Buddhism and the Meaning of the Word Dharma*,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923, p. 98.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고통을 일상적이고 체험적인 것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를테면 번뇌를 유발하는 온갖 요소를 유루법(有漏法)이라고 하는데, 고통은 유루법의 다른 명칭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고통은 현상적 존재, 현상적 생활, 인간의 현실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번뇌의 미혹에 쌓인 채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中村 元(1980), 「苦の問題」)

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심리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우주가 붕괴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실제의 사태와 그에 따라서 자신 내부에서 느끼는 괴로움 등이 서로 뒤얹혀서 심리적, 형이상학적, 실존적 문제들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괴로움/고통의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육체적 아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만족, 주변상황과 연계된 불안감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고통은 일상적 의미에서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철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위제세계라는 이러한 특징을 불만족성(unsatisfactoriness)이라고 소개한다. 개체를 이루는 모든 것은 무상한 성질 때문에 덧없으며, 비지속적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스러운 경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상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불교에서 사물을 보는 데는 낮은 관점과 높은 관점 두 가지가 있다. 괴로움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물론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낮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경험세계, 즉 감각과 느낌의 영역에는 즐겁거나 행복한 느낌, 불쾌하거나 불행한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 있다. 세상에는 불행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느낌을 더 깊이 검토해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의 경험들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분모가 있다. 즉 이 세 종류의 경험이 모두 무상 혹은 변천이라는 보편적인 속성에 종속된다

는 사실이다.²⁾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붓다가 설한 사성제와 일체개고에서 의미하는 고통은 단순한 괴로운 느낌의 차원을 초월한다. 심지어 즐거움이나 행복도 그것이 무상한 것이라면 불만족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고통이라는 것이다. 붓다는 사리뵈따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느낌이 고통이라고 설명한다.

벗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 벗이여, 이 세 가지 느낌은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알려질 때 느낌 가운데 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법문은 이와 같이 무엇이든 느껴진 것은 괴로움에 속한다고 간략하게 설할 수 있다.³⁾

이처럼 느낌을 통한 괴로움은 즐거움과 대비되는 낮은 세속적 관점의 괴로움을 말한다. 하지만 붓다가 삼법인을 통해 설하고자 했던 괴로움은 느낌의 범주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은 무상함 안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병을 치유하여 생명을 살리려는 데 중점을 둔 약사신앙의 근본경전인 『약사경』의 판본과 한역, 유통

2) O. H. de. A. Wijesekera, *The Three Signata: Anicca, Dukkha, Anatta: The Wheel Publication No. 20*.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82; 오 에이치 드 에이 위제세 케라, 이지수 옮김, 『존재의 세 가지 속성』, 고요한 소리, 2005, 26쪽, 30쪽.

3) 정준영, 「붓다의 괴로움과 그 소멸」,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운주사, 2013. 53쪽.

의 경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돈황지역에서 발견된 제기(題記) 등을 소개하고, 『약사경』이 특히 생로병사 중 병이라는 고통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했는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한다.

II. 『약사경(藥師經)』이 지닌 치유적 의미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인 생로병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통은 병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 문제를 불교에서는 약사(藥師)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현명한 의사가 아픈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듯이 부처는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 알맞은 법을 설하여 고통을 없애주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 즉 대의왕(大醫王)이라고 한다.

어떤 대의왕이 약으로 치료하는 모든 법을 잘 알아 이 세상의 약초가 그 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다 분별해 안다. 또 그는 전생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모든 처방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대의왕은 임종 때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죽은 뒤에는 저 중생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교묘한 방편을 나아내리라.’ 그래서 몸에 약을 바르고 주술을 행한다.⁴⁾

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60권본)

약사여래의 기원과 더불어 약사신앙은 내세관과도 관련된다. 현실의 병에 대한 치료는 직접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병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그 원인이 역병과 재난을 일으키는 나쁜 생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바로 약이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는다. 그런 다음 약국에 가서 약사로부터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받아 복용한다. 이처럼 약은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서 작용한다.

이와 달리 불교의 약사신앙은 정신적 치료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세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병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현세의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약사신앙이 대신했다. 약사(藥師)라는 말은 중생의 몸속의 질병과 외상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병이나 전도(顛倒)된 생각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양약(良藥) 중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약사경 사상의 핵심은 십이대원(十二大願)에 담겨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⁶⁾를 얻을 때, 내 몸에서 광명이 찬란히 빛나[熾然]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고, 서른두 가지 장부의 모습[大丈夫相]⁷⁾과 여든 가지 아름다운 모습[隨形好]⁸⁾으로 그 몸을 장식[莊嚴]할 것이니, 모든 유정들이

5) 김재권 외, 『치유하는 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229-232쪽 참조.

6) 梵語 anuttara samyak-sambodhi의 음역으로, 無上正等正覺 또는 無上正遍知라고 번역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위없이 뛰어나며 바르고 평등하다는 뜻이다.

7) 부처님 몸에 갖춘 32가지 표상. 삼십이대인상(三十二大人相) · 삼십이상(三十二相)이라고도 한다. 이 상을 갖춘 이는 세속에 있으면 전륜왕(轉輪王),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한다.

나와 다름없이 되기를 소원한다.

두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 [菩提]을 얻을 때, 몸이 유리와 같이 안팎이 밝고 투명하며, 깨끗하여 한점의 티끌도 없고, 광명이 광대(廣大)하고 공덕이 드높아 몸이 편히 머무르며, 빛나는 그물[燄網]로 장식하여 해와 달보다 밝으니, 저승의 중생들이 모두 깨우침을 입고 뜻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세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혜의 방편으로써 여러 유정들이 모두 제한없이 필요한 물건들을 얻게 하고, 중생들이 가진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한다.

네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샅된 도를 행하는 중생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의 도에 안주하도록 할 것이고, 성문(聲聞)과 독각(獨覺)을 행하는 이들은 모두 대승(大乘)에 편안히 머물도록 할 것을 소원한다.

다섯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수없이 많은 유정들이 나의 법(法) 안에서 범행(梵行)을 수행하면 그들 모두가 불결계(不戒)⁹⁾를 얻도록 하고 삼취계(三聚戒)¹⁰⁾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설령 훼손하여

8)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진 미묘한 표지로서 32상(相)에 따르는 잘 생긴 모양이란 뜻. 32상을 다시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것. 팔십중호(八十種好)라고도 한다.

9) 개인의 생활과 교단의 유지와 관련된 계율로서 어그러뜨리지 말아야 할 계.

10) 三聚淨戒라고도 한다. 攝律儀戒·攝善法戒·攝衆生戒로 나뉜다. 십률의계는 5계·10계·250계 등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規律威儀 등을 통한 계율이고, 십선법계는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계율이며, 십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계율이다. 이 계율은 대승불교의 『화엄경』·『법방경』 등에 근거한 것으로, 대승·소승, 출가인과 재가인에 관계없이 모두 다 이 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5계·10계 등을 받는 것을 別受라고 하는 데 대해 삼취정계를 받는 것은 總受라고 한다.

여기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름[약사유리광여래불]을 듣기만 하면 도리어 청정함을 얻어 악취(惡趣)¹¹⁾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한다.

여섯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유정들의 몸이 불완전하여 여러 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추하고 천박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눈 멀고, 귀 먹고, 병어리이고, 손과 발이 뒤틀리고, 절름발이이며, 꼬추이고, 온몸이 굻고, 미치광이이이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모두 신체가 온전해지고 총명한 지혜[點慧]를 얻으며 모든 기관들을 온전히 갖추어 온갖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기를 소원한다.

일곱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유정들이 온갖 병으로 절박하여도 구할 길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육친이 없고, 집이 없으며, 빈궁하고 괴로움이 많더라도 나의 명호가 한 번이라도 귀에 들리면 온갖 병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며 집안 식구들과 물품들이 모두 풍족하게 되며 나아가 무상(無上)의 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소원한다.

여덟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자의 온갖 나쁜 일로 고통을 당하여 몹시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버리길 원하는 여인이 있다고 해도,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모두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장부의 모습을 갖추게 되며, 나아가 무상의

11)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고통의 세계. 地獄道, 餓鬼道, 畜生道, 修羅道の 네 가지가 있다.

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소원한다.

아홉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유정들이 마귀의 덫[羅網]에서 빠져나와 모든 외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온갖 악견(惡見)의 수풀[稠林]에 떨어진 이들을 모두 인도하여 바른 견해[正見]에 머물게 하여, 점차로 여러 보살행을 닦아 빨리 무상의 정등보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한다.

열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유정들이 왕법에 얽매여 묶이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혹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밖의 끝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당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애가 타서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나의 이름을 들으면 나의 복덕과 위신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을 소원한다.

열한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유정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당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악업(惡業)을 짓는다 해도 나의 이름을 듣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받아 지니면, 나는 마땅히 우선 가장 맛있는[上妙]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하고난 뒤에 진리[法]의 맛으로 마침내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도록 할 것을 소원한다.

열두 번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유정들이 가난하여 옷이 없고, 파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추위와 더위로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받아 지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 곧 여러 가지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갖 보배로 장식한 도구와 꽃다발[花鬘]과 몸에 바르

는 향[塗香]과 북을 치며 연주하는 음악[鼓樂]과 온갖 기예[伎]를 얻어, 마음대로 누리면서 모두가 만족하기를 소원한다.

약사십이대원(藥師十二大願)의 내용을 통해서 약사여래가 단순히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복이나 음식 등의 의식주문제는 물론 사도(邪道)나 외도(外道)에 빠진 자, 파계자, 범법자 등의 구제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약사경에서는 십이대원 이외에도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 악귀를 물리쳐서 횡사를 면하고 싶은 자,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자들이 약사여래의 명호를 부르면서 발원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적의 침입과 내란, 성수(星宿)의 괴변, 일월(日月)의 괴변, 때아닌 비바람, 가뭄, 질병의 유행 등 국가가 큰 재난에 처했을 때도 약사여래의 본원력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통해 약사경 가운데 대승 보살의 제세구인(濟世救人) 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약사경의 한역 및 유통의 문제

약사경전의 한역 과정 및 약사경의 여러 사본이 동아시아 지역에 유통된 경로 등을 살펴보면 당시 민간인들에게 미친 약사신앙의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불교경전의 한역 및 유통과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한역본과 다른 언어역(원)본(이를테면 산스크리트어본, 티벳어본 등)과의 비교 문제, 한역본 내 異本의 문제, 경전이 수록된 板本の 문제, 경전 寫本の 문제. 한역경

전의 문자의 동이 문제 및 문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이들 여러 본들에 실린 경전의 해당 구절을 대조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먼저 한역본과 다른 언어본과의 대조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문제는 어느 언어본이 원본이고 어느 언어본이 원본에 대한 번역본인가의 문제이다. 약사경의 경우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불교경전은 보통 인도에서 찬술되어 한자언어권으로 건너온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문본이 원본이라고 한다면 그 경전은 위경 내지 의경으로 분류될 소지가 크다. 다음 판본의 문제는 보통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판된 경우와 사가에서 소규모로 조판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조판된 것은 공식적인 검증을 거쳐 공인된 자료만을 엄선하여 실으므로 자료의 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사가에서 조판된 판본의 경우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경전 사본의 경우, 사본의 특성상 한부만 존재하며, 유통본과 사본의 문자 대조를 통하여 경전의 번역과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사본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필사자와 종이 등의 자금 제공자, 인연이 되는 사람들 등을 기술한 제기가 사본 초입이나 말미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당시 사본 필사의 정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1. 약사경 한역본

약사경은 약사여래를 대상으로 하는 약사신앙의 근본경전

이다. 智昇이 730년에 편찬한 開元錄에 의거하면 약사경에는 네 종류의 한역본이 있다.

첫 번째는 동진(東晉, 317-322)의 帛尸梨密多羅(317-322)가 한역한 것으로 알려진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大正藏21, 532中-536中)이다. 백시리밀다라역본은 가장 오래 전에 성립된 역본인데, 역자와 번역의 진위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왔다. 이 가운데 일치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백시리밀다라역본은 사실은 백시리밀다라의 번역이 아니라 5세기 중엽 劉宋 시기(457)에 활약한 慧簡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僧祐(444~518)의 出三藏記集에는 다른 한종의 藥師瑠璃光經이 灌頂經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出三藏記集에 의하면 이 藥師瑠璃光經은 漢譯本이 아닌 抄撰本으로서, 宋나라 孝武帝 大明 元年(457)에 慧簡이 秣陵 鹿野寺에서 經에 의거하여 抄撰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²⁾ 현존하는 藥師經疏는 수의 달마급다본을 저본으로 하고 당 현장역본과 유송본, 즉 혜간본을 참고하여 저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유송본이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과 구절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隋나라 양제(煬帝) 大業11年(615), 東都의 翻經館에서 達摩笈다가 한역한 佛說藥師如來本願經(大正藏14, 401中

12) 약사경의 유래 및 그 전래와 한역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중국찬술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慧簡에 의해 撰寫된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이 인도로 전해져 梵文으로 번역되었고, 각각 다르게 내용이 바뀐 梵文本이 다시 중국에 전입되어 佛說藥師如來本願經,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 등으로 한역되었다는 것이다(伍小劫, “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与文化汇流”, 『南亚研究』2010年 2期. 方廣錫, “再谈佛教发展中的文化汇流”. 『敦煌研究』, 2011年 3期). 그러나 楊維中은 20세기 초반에 카슈미르 길기트 지역에서 발견된 범본(길기트본)과 혜간본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들어 약사경이 위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楊維中, 「藥師經翻譯新考」, 『西南民族大學學報』, 2014年 第6期)

-404下)이다.

세 번째는 唐나라 永徽 元年(650)에 玄奘이 長安의 大慈恩寺에서 한역한 藥師瑠璃光如來本愿功德經(大正藏14, 404下-408中)이다. 후대에 비교적 널리 유통된 것은 현장의 한역본이다.

네 번째는 唐나라 中宗 神龍3年(707) 義淨이 佛光殿에서 한역한 藥師瑠璃光七佛本愿功德經(大正藏14, 409上-418上)이다. 의정역본은 앞의 세 가지 판본과 차이가 가장 크다. 앞의 세 판본에는 藥師瑠璃光如來佛의 本愿功德에 대한 내용만 있으며, 의정역본에는 약사여래불을 포함한 七佛淨土, 곧 藥師瑠璃光如來, 善名稱吉祥王如來, 寶月智嚴光音自在王如來, 金色寶光妙行成就如來, 無憂最勝吉祥如來, 法海雷音如來, 法海勝慧遊戲神通如來의 本愿功德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의정역본의 칠불약사여래정토는 앞의 세 판본의 약사여래정토와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첫째, 앞의 세 판본은 부처께서 神呪를 설하신 뒤에 대중이 약사불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하고 있으나, 의정역본은 칠불의 명호를 들은 뒤에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다. 둘째, 의정역본에는 藥叉神將이 칠불의 명호를 듣고 호법을 발원한다고 하였으며, 이 때 대중들이 모두 일어나자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 칠불이 대중들 앞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역본들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셋째, 의정역본에는 칠불이呪를 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역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넷째, 다른 역본에는 금강 및 범석천이 각각 呪語를 설하는 부분이 없으나, 의정역본에는 있다. 다섯째, 현장역본에는 약사여래가 신주를 설하는 구절이 없으나, 현행 유통본에는 의정역본에서

가져다가 첨가하였다. 또 백시리밀다역본에는 신주가 있으나 經末에 첨부하였고, 의정역본의 신주는 경문 중간에 들어있다.

약사경에는 이상의 한문본 이외에 산스크리트어본과 티베트어본이 있다. 산스크리트어본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기록은 달마굽다가 번역한 『佛說藥師如來本願經』 서문에도 언급되어 있다.

옛날 송 효무제 치세에 녹야사의 사문 혜간이 번역하여 세상에 유행하였다. 그런데 범본과 송본은 잘 통하지 않고 문장이 조잡하여 읽는 이들이 많은 의혹을 품게 되었다. 慧矩는 일찍부터 범서를 배우고 항상 범경을 읽어 왔는데, 이 경을 구하여 그 오류를 검토하려고 생각하였다. 개황17년 초에 한 본을 얻었는데, 빠뜨리고 틀리지 않을까 걱정하여 감히 번역하지 못했다. 대업11년에 또 두 본을 얻자 다시 서로 대조하여 교정했다. 드디어 삼장법사 달마굽다와 수나라의 역경사문 범행, 명칙, 장순, 해어 등이 동도의 낙수 남쪽 상림원 변경관에서 이 경을 다시 번역하였다. 이전 것의 잘못을 고치고 뒤의 것의 실수를 바로잡아 한 마디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반드시 세 번 반복해서 기록하니, 깊은 뜻을 전하는 데에 큰 과오는 없게 되었다. 그 해 12월 8일에 번역과 교감을 마치고 1권으로 만들다.¹³⁾

13) 昔宋孝武之世，鹿野寺沙門慧簡已曾譯出在世流行，但以梵宋不融、文辭雜糅，致令轉讀之輩多生疑惑。矩早學梵書恒披葉典，思遇此經驗其紕謬；開皇十七年初獲一本，猶恐脫誤未敢即翻，至大業十一年復得二本，更相讎比方爲指定，遂與三藏法師達磨笈多，并大隋翻經沙門法行明則、長順海馭等，於東都洛水南上林園翻經館重譯此本。深鑑前非方懲後失，故一言出口必三覆乃書，傳度幽旨差無大過；其年

서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달마굽다본은 달마굽다, 혜거, 법행, 명칙, 장순, 해어 등 6인이 공동으로 번역 및 교감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범본과 송본을 저본으로 삼되, 개황17년과 대업11년에 얻은 세 가지의 본을 비교 대조한 교정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약사경 범본은 20세기 초반에 카슈미르 길기트 지역에서 발견된 일련의 산스크리트어 사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길기트본이라고도 한다.¹⁴⁾ 이 범본을 한역본 4종과 대조해 봄으로써 시간적 선후관계를 짚어볼 수 있다. 티벳어본은 두 종류로서 Bcom-ldam ḥdas sman-gyi blavaidūryaḥi hod-kyi sñon-gyi smon-lam-gyi khyad-par rgyas-pa는 현장역본에 해당하고, De-bshin-gśegs-pa bdun-gyi sñon-gyi smon-lam-gyi khyad-par rgyas-pa는 의정역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경의 저본이 중국에서 찬술된 것인지, 아니면 인도지역에서 먼저 산스크리트어본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려면 길기트본과 혜간본을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길기트본은 훼손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전문을 대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부분적인 대조작업을 통해 원문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長尾佳代子에 따르면 길기트본과 혜간본 사이에는 상이한 점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즉 혜간본의 경우 경전의 이해와 실행이 중요시되고 있는 반

十二月八日翻勘方了，仍爲一卷 °(大正藏14, 401上)

14) Bhaiṣajyaguruvaidūryaprabharajasūtra, ed. Dutt, Gilgit Manuscripts vol. 1, Srinagar-Kashmir, 1939, pp. 1-32에 실려 있다.

면, 길기트본에서는 불명의 주술적 효력으로 악업을 무효화시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길기트본이 혜간본보다 대승적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長尾佳代子は 혜간본 안에 길기트본보다 오래된 단계의 古藥師經의 기술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¹⁵⁾

한편 방광창은 혜간본, 즉 관정경에 도교적 내용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약사경이 중국에서 먼저 찬술되었으며, 인도로 유입되어 범어로 쓰였다가 재차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만으로 중국찬술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찬술된 약사경이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도교적 색채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약사경에는 아직 그 원형이 밝혀지지 않은 고약사경이 있으며, 길기트본과 송본 모두 고약사경과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달마급다본의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달마급다가 입수한 범본이 고약사경일 가능성이 크다.

2. 약사경의 판본

15) 長尾佳代子, 「ギルギット本『藥師經』の成立」, 『パーリ學佛教文化學』 vol. 7, 1994.

〈표 1〉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판본¹⁶⁾

약칭	완전 명칭	장정	행자수	조성연대	출처/소장처
① 斯2616	돈황사본(斯2616)	卷軸裝	17字	764년(廣德 2年)	돈황대장경
② 北259	〃 (北259)	〃	〃	唐代	〃
③ 斯104	〃 (斯104)	〃	〃	〃	〃
④ 斯4713	〃 (斯4713)	〃	〃	〃	〃
⑤ 斯3030	〃 (斯3030)	〃	〃	〃	〃
⑥ 斯1905	〃 (斯1905)	〃	〃	〃	〃
⑦ 斯135	〃 (斯135)	〃	〃	〃	〃
⑧ 北262	〃 (北262)	〃	〃	〃	〃
⑨ 房山本	房山石經 印本	大碑	不同	唐代 및 862년(咸通 3年) ¹⁷⁾	방산석경
⑩ 初雕本	初雕藏 판본	卷軸裝	23行 14字	1011~1087	고려대장경 연구소
⑪ 乾統本	乾統二年 고려 간본	線裝	24行 15字	1102년(乾統 2年)	장서각
⑫ 高麗本	高麗刊 海印寺腹藏本	卷軸裝	24行 15字	11-12세기	해인사
⑬ 再雕本	再雕藏 판본	卷軸裝	23行 14字	1236~1251	고려대장경 연구소
⑭ 資福本	資福藏 판본	折疊裝	30行 17字	1175	중화대장경
⑮ 磧砂本	磧砂藏 판본	折疊裝	30行 17字	1234~1322	중화대장경
⑯ 永南本	永樂南藏 판본	折疊裝	30行 17字	1412	중화대장경
⑰ 徑山本	徑山藏 판본	折疊裝	20行 20字	1589~1677	중화대장경
⑱ 淸藏本	淸藏 판본	線裝	25行 17字	1735~1738	중화대장경
⑲ 景泰本	景泰二年 조선 간본	線裝	9行 15字	1451년(景泰 2年)	국립 중앙도서관
⑳ 天順本	天順三年 조선 간본	線裝	9行 15字	1459년(天順 3年)	추정
				1528년(嘉靖 7年)	고려대

16) 유부현, 「藏書閣所藏本(乾統本)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연구」, 『藏書閣所藏本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唐나라 영휘(永徽) 元年(650)에 현장(玄奘)에 의해 장안(長安)의 대자은사(大慈恩寺)에서 한역된 이후, 개원(開元) 18년(730)에는 지승(智昇)의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개원석교록의 입장록(入藏錄)에 의거하여 조성된 개보장(開寶藏)(971-983), 고려장(高麗藏)(초조장(1011-1087), 재조장(1236-1251)), 거란장(契丹藏)(1031-1063) 등 모든 간본(刊本) 대장경(大藏經)에 수록되어 유포되었다. 또한 단행본의 형태로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이러한 판본들은 각각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 운문 또는 오류로 인해 각 판본의 문자(文字)의 같고 다름[異同]이 개별적으로 혹은 계통별로 발생되는데, 각 판본에서 형성된 문자의 같고 다름은 각 판본의 계통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약사경 寫經

불교에서는 사경에 매우 큰 공덕이 있다고 여겼다. 20세기 초 돈황 장경동 내에서 대량의 사경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295부의 약사경전류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약사불 신앙이 돈황 지역에서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들 사본은 사본 경권의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의 여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약사경 287부. 2. 藥師經序 1부. 3. 藥師經疏 3부. 4. 藥師經雜抄 1부. 5. 藥師佛呪 1부. 6. 藥師道場文 1

(乾統本)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연구회의 자료집』, 2016 참조.

17) 房山石經本은 唐代에 石刻된 版本과 咸通 3年(862)에 石刻된 版本 두 종이 있다 (『房山石經』 3冊, p. 552, 504.)

18) 黃勇武編, 『敦煌遺書最新目錄』, 新文豐出版公司, 1986.

부. 이를 통하여 돈황지역 약사불 신앙이 지닌 풍부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약사경 사본과 관련된 題記들이다. 이를테면 <표1>의 ①-⑧에 해당하는 것은 돈황지역에서 출토된 약사경 사본들이다. 약사경 사본 가운데 일부의 제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藥師經 寫經題記¹⁹⁾

시대	編號	筆寫經典	작자	題記(愿文)
西 魏 (509)	北 1276	『入楞伽經』 등	建暉	夫至妙冲玄, 則言辭難表: 惠理深固, 則凝然常寂. 淡泊夷靜, 隨緣改化. 凡夫想識, 豈能窮達. 推尋群典, 崇善爲先. 是以比丘尼建暉, 既集因殖, 稟形女穢, 嬰罹疾病, 抱患當今. 仰惟此苦, 無可由拔. 遂卽減割衣, 爲七世父母, 先死後亡, 敬寫『入楞伽』一部, 『方廣』一部, 『藥師』二部, 因此微福, 使得雖女身後成男子, 法界衆生, 一時成佛. 大代大魏永平二年(509)八月四日比丘尼建暉寫訖, 流通供養.
北 魏 (533)	日 本 五 島 美 術 館	『大方等大集經』 등	元太榮	大代大魏永熙二年(533)五月七日, 清信士使節持節散騎常侍開府儀同三司督領西諸事驃騎大將瓜州刺史東楊王元太榮, 自惟福助微淺, 每嬰纏志(重思), 無方自救. 仰恃天王發誓之重, 仰爲比沙門天敬造『大集』一部十卷, 『法華』一部十卷, 『維摩』一部三卷, 『藥師』一部一卷, 合二十四卷. 觀(愿)天王成佛, 弟子所患永除, 四體休寧. 所愿如實.
隋	三 井	『華嚴經』	宋紹	大隋開皇三歲(583)在癸卯五月十三日, 武

19) 黃征·吳偉編校, 『敦煌愿文集』, 岳麓社, 1995 참조.

시대	編號	筆寫經典	작자	題記(愿文)
(583)	八 郎 右 衛 門		寅	候帥都督前治會稽縣令宋紹寅, 因遭母喪, 亭私治服. 發愿讀『華嚴經』一部, 『大集經』一部, 『法華經』一部, 『金光明經』一部, 『仁王經』一部, 『藥師經』四十九遍. 愿國主興隆, 八表歸一, 兵甲休息. 又愿亡父母托生西方無量壽國, 常聞正法; 己身福慶從身, 遇善知識; 家眷大小康寧. 一切含生, 普蒙斯愿.
唐 (619)	日 本 書 博 物 館	『藥師琉璃光如 來本愿功德經』 등	比丘 惠蓮	夫至妙冲玄, 則言辭難表: 惠理深固, 則凝然常寂. 淡泊夷靜, 隨緣改化. 凡夫想識, 豈能窮達. 推尋群典, 崇善爲先. 是以比丘尼建暉, 爲七世師僧虔造『藥師琉璃光經』一部, 因此微福, 愿使游神淨土, 逮及法界衆生, 一齊成佛. 大唐開國武德二年(619)四月八日.
唐 (675)	P.2900	『藥師經』(卷末)		(唐高宗)上元二年(675)十一月二十七日, 弟子女人索八娘爲難月, 愿無諸苦惱, 分難(婉)平安.
唐	B.8512 S.2551	『藥師本愿經疏』	慧觀	慧觀昔因問道, 得履京華, 備踐講筵十有餘載. 遂逢永淳飢餒, 杖錫旋歸. 疑痼膏肓, 罔知析滯. 每玩味茲典, 常諷誦受持. 然粗薄通, 羸得文意. 不量暗短, 輒述所聞.
唐 (764)	S.2616	『藥師琉璃光如 來本愿功德經』 (卷末)		弟子賈崇裕愿平安, 廣德二年(764)十二月二十五日發心寫『藥師經』一卷.

약사경의 사경은 대부분 다른 경전들의 사경작업과 결합되어 나타나며, 약사불 신앙은 불교의 다른 신앙형식, 예컨대 관음신앙, 미륵신앙, 아미타신앙, 유마힐신앙 등과 융합하여

나타난다. 사경의 제기 가운데 약사경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대열반경』의 제기들이다. 예컨대 원태영과 비구니 건휘, 그리고 송소인의 다른 사경 제기 가운데에는 『대열반경』이 등장한다. 사경은 보리심을 발원하도록 하며, 사경자로 하여금 공덕을 쌓도록 해줄 뿐 아니라, 불교의 전파 및 경전의 유포에 도움이 된다.

제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양인이 사경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사경자가 여성인 경우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길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예컨대 비구니 건휘는 사경을 통하여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뒤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되길 기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불교가 여성 출가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의 지위가 낮았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병이 낫길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약사불 신앙의 특색 가운데 하나로, 사경 제기도 예외가 아니다. 원태영은 사경에서 모두 병환이 물러가고 사지가 편안하길 기원하고 있다. 또 망자를 위한 것이 있는데, 송소인은 사경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복을 기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다. 辛與昇은 사경(日本書道博物館所藏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돈황 지역이 변경인 까닭에 이민족의 통치를 위하여 한족이 돈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사히 출산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다. 색팔랑의 남편은 약사경을 사경하면서 부인의 순산을 기원하고 있다. 이처럼 약사경의

사경을 통하여 당시 돈황지역의 사람들은 현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원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약사불 신앙이 지닌 공리(功利)적이고 현세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약사경전의 한역과 유통과정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언어 및 사상과 신앙의 영역이 뒷받침됨으로써 경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교경전에 대한 연구는 이론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 보다 나은 학문적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마치며

지금까지 불교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통과 생명, 치유의 문제를 약사경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약사여래는 무량한 오랜 겁을 두고 수행하여 그 願力の 공덕으로 금생에 여래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여래의 名號를 생각하고 부르면 죄업이 구제된다는 불로서 願生佛이라고도 한다. 또 과거세의 수행의 과보로 금생에 佛身을 이룬 것이므로 報身佛이기도 하다. 보살의 願과 行을 완성하여 그 과보로서 받는 불신이라는 의미이다. 약사여래는 중생이 고통에 빠져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고통에 지쳐 있을 때 그를 구제하고자 큰 원을 세워 오랜 수행을 거쳐 성불하였다. 이러한 약사여래는 중생의 고난과 중생계의 온갖 재난을 몸소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上

求菩提 下化衆生'의 利他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자라고 할 때 약사경이야말로 이러한 대승의 보살사상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연장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명연장에서 오히려 병으로 인한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죽었을 사람들이 여러 병을 앓으면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약사여래의 불교 전통은 오늘날 특히 주목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오 에이치 드 에이 위제세케라, 이지수 옮김, 『존재의 세 가지 속성』, 고요한 소리, 2005.
- 정준영, 「붓다의 괴로움과 그 소멸」,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운주사, 2013.
- 유부현, 「藏書閣所藏本(乾統本)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연구」, 『藏書閣所藏本(乾統本)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연구회의 자료집』, 2016.
- 김재권 외, 『치유하는 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10.
- 『佛說藥師如來本願經』, 大正藏14.
- 『房山石經』 3冊.
- 中村 元, 「苦の問題」. 『苦』, 平樂寺書店, 1980.
- 黃勇武編, 『敦煌遺書最新目錄』, 新文豐出版公司, 1986.
- 黃征·吳偉編校, 『敦煌愿文集』, 岳麓社, 1995.
- 伍小劫, “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与文化汇流”, 『南亚研究』 2010年 2期.
- 方廣錫, “再谈佛教发展中的文化汇流”. 『敦煌研究』, 2011年 3期.
- 楊維中, 「藥師經翻譯新考」, 『西南民族大學學報』, 2014年 第6期.
- 長尾佳代子, 「ギルギット本『藥師經』の成立」, 『パーリ學佛教文化學』 vol. 7, 1994.

Stcherbatsky, *The Central Conception of Buddhism and the Meaning of the Word Dharma*,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923.

A Study on the Way of Heal the Pain in Case of Bhaisajyaguru Sutra

Ha, Eugene
(Sogang Univ.)

The faith of Bhaisajyaguru is based on Bhaisajyaguru Sutra. Bhaisajyaguru Sutra has five Chinese versions. Bhaisajyaguru Sutra reflects the huge system of belief in Bhaisajyaguru and complete thought system. It's ideological system is divided into the twelve vows of the Medicine Buddha, wisdom in Buddhism, and content of how to practice Buddhist conduct. These parts together constitute Buddhist philosophy which from Sadhana of Bhaisajyaguru. The twelve vows of the Medicine Buddha show that Bhaisajyaguru cares about all the beings and makes their dream come true. With the spread of Buddhism in China, Bhaisajyaguru Sutra influenced a lot of people, and mixed Chinese culture together.

Subject: Chinese philosophy, Buddhist philosophy

Key Words: Bhaisajyaguru Sutra, Belief in Bhaisajyaguru, the twelve vows of the Medicine Buddha